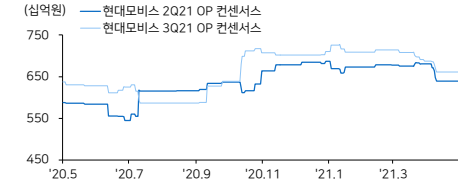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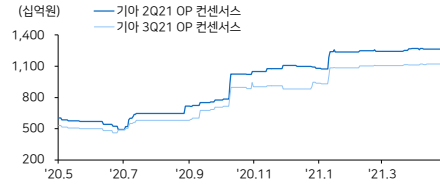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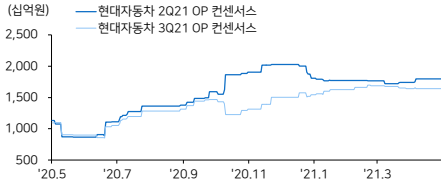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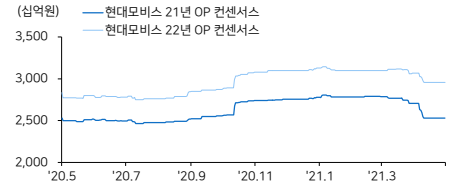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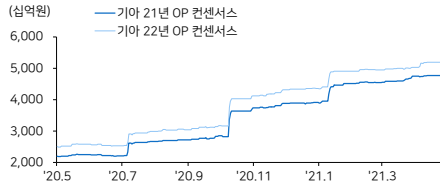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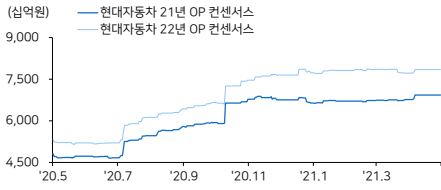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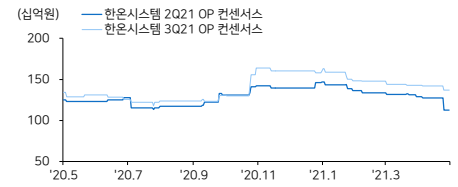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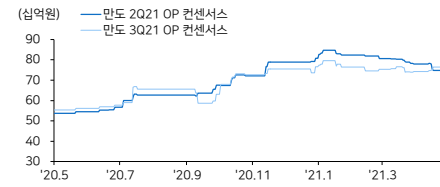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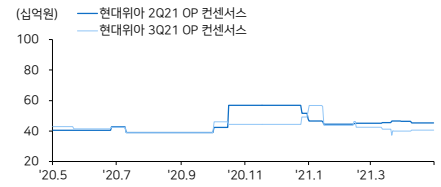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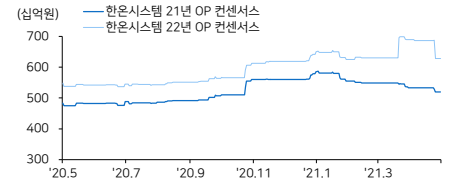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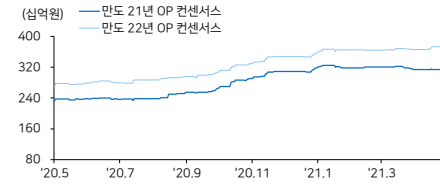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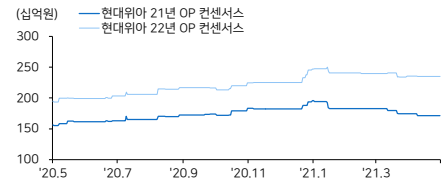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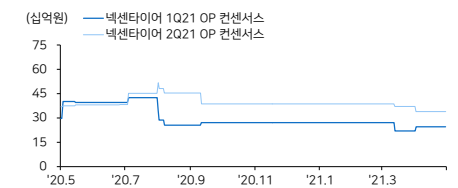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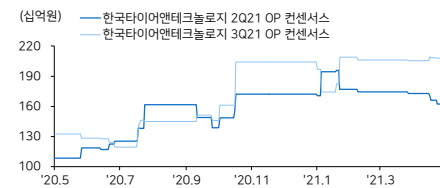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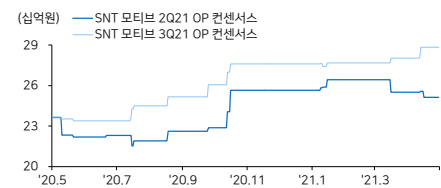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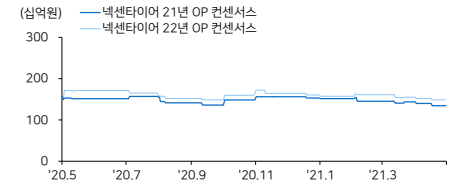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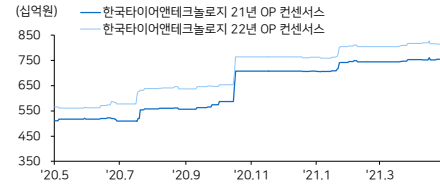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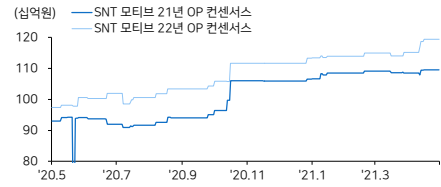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플라잉카 세계 최초로 뜬다...연내 헛서 시범운영 (THE GURU)

올 연말 영국 코번트리에서 현대차 플라잉카 시범 비행이 실시될 예정이며, 영국 민간 항공청 규정을 충족하는 인공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연말 최초 비행부터 3~4개월 동안 UAM 전용 공항인 Air-One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
<https://bit.ly/3hvRPuB>

현대차·기아 노조, 美 8조 투자 반발...임단협 진통 예상 (뉴시스)

현대차그룹이 향후 5년간 미국시장에 74억 달러(한화 8조 1417억원)를 투자, EV 현지 생산 계획 밝힌 가운데 노조가 국내 고용 유출 우려에 반발하고 나선.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음.
<https://bit.ly/3uWkKcc>

한전·카카오모빌리티, 새로운 전기차 충전 서비스 '맞손' (연합뉴스)

두 회사는 최근 '전기차 충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비스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함. 전기차 충전 로밍 중개 서비스 '차지링크'와 연계해 내비게이션에서 최적경로의 충전소를 안내 및 결제까지 가능한 '차지 플레칸' 서비스 제공 예정.
<https://bit.ly/2SO2yX7>

중 포니넷에이아이, '3년 내 자율주행 시스템 양산' (ZDNet Korea)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Pony.AI가 라이다 기업 '루미나'와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하고, '23년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을 대규모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 Pony.AI는 미국과 중국 5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22만회 서비스 제공 중임.
<https://bit.ly/3bwRVQc>

현대차, 4월 러시아 1만5483대 기록...전년 비 6배↑ (THE GURU)

현대차 러시아권역본부(CIS)는 지난달 러시아 시장에서 1만5483대를 판매하며, COVID19 기저효과로 yoy + 6배 판매량 상승을 보임. SUV모델 크레타를 비롯해 슬라리스, 쉐타페 등이 실적 개선에 견인한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eSbaVd>

후 반도체 공급난에 중고차 값까지 들쭉이나 (세계일보)

반도체 수급난 여파가 신차 생산 차질을 넘어 중고차 시장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해외는 이미 차량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국내도 중고차 판매 성수기인 다음달부터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https://bit.ly/3eV5hXu>

중국 4월 산업생산 9.8%↑...수출·투자 호조 (뉴시스)

중국은 4월 주요 경제통계를 공표함. 산업생산이 설비투자 포함 고정자산 투자의 수출 호조로 대폭 증대했다고 밝힘. 자동차와 초기 1GWh에서 시작해 점차 규모를 확대 예정이며, QS-1 관련 정보의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
<https://bit.ly/3yio1a0>

폭스바겐-퀀텀스케이프, 전고체 배터리 내년 양산 (THE GURU)

VW 미국법인인 퀀텀스케이프와 올해 연말까지 21GWh 규모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시설 'QS-1'을 구축한다고 밝힘. 초기 1GWh에서 시작해 점차 규모를 확대 예정이며, QS-1 관련 정보의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
<https://bit.ly/3waE2Xj>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